

한국수자원학회의 현재 조명



고 덕 구

(주)동부엔지니어링 부사장
dkkoh@dbeng.co.kr

먼저 한국수자원학회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모든 회원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 이런 특집을 쓸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느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자의 학회와 함께 한 경험과 소회를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과 나누고, 주관적이겠지만 지금 우리 학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60년, 70년, 100년을 향해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 학회의 발자취에 대한 모든 것은 한국수자원학회 50년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저자는 학회활동을 해 오면서 나만의 시각(window)를 통해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1. 학회와 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학회의 회원 수는 2017년 현재 3,144명에 이르고, 그 중 학회에서의 활동비중이 가장 큰 대학교수 및 학생들이 1/3을 차지하고 있다. 학회활동의 대부분을 공기업 연구소(K-water 연구원)에서 해온 저자의 시각은 아마도 대학에 소속된 회원들의 시각과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학회활동은 대학원 석사과정이던 1981년 한국농공학회에서 시작되었다. 가입 동기는 지도교수님과 선배들의 권유였고, 목적은 '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여 학술 발표를 하거나 최신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나에게서는 학회란 그 분야의 종사자들이 모여 학술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라는 것이 학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였던 것이다. 학자들이 학술논문을 통해 연구 성과를 학회지나 논문집을 통해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는 단체가 학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후로 얼마간 시간이 지나, 박사과정을 하던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표-1. 한국수자원학회 직군별 회원 수

구분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민간기업직원	공기업직원	학생	기타	총회원수
회원 수(명)	397	463	171	1,045	318	655	95	3,144

저자가 우리 학회에 가입한 것은 1992년이였다. 당시 대학의 교수채용 공정성을 위해 문교부가 추진한 한국학술진흥재단 우수교수연구인력초빙제를 통해 Brain Pool에 선발되어 충북대학교 수자원 수질 연구센터 초빙교수로 근무할 당시였다. 농업토목에 한정하여 해오던 학술활동을 일반 토목의 수자원분야로 확대해 활동해야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고, 이때의 목적은 학회지에 학술논문을 기고하여 대외적인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을 축적하기 위함이었다.

그 이후 아래 <Box-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의원과 학회지 및 논문집 편집위원, 수문분과 등 학술분과위원, 수자원홍보분과 위원장, 이사 및 운영이사, 감사, 회장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보직 활동을 하며, 학회의 다양한 이슈와 정책, 제도의 변천을 목격하고 체험해 왔다.

<Box-1> 저자의 한국수자원학회 보직경력

- 평의원(1997.3~2016.12.31)
- 논문집편집위원(1997.3~1999.2)
- 수문분과 및 수자원정책분과, 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1999.3~2001.2)
- 수자원시스템분과 간사(2001.3~2003.2)
- 수자원홍보분과위원장 (2003.3.2~2005.2.28)
- 이사/기획위원회 수자원홍보분과위원장 (2005.3.2~2007.2.28)
- 이사 (2007.3~2009.2)
- 운영이사 (2009.3~2011.2)
- 감사 (2015.1~2016.12.31)
- 회장선거관리위원장 (2016.6~2016.11)

2. 학회의 기능과 역할

<Box-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학회의 정관에는 학회의 목적을 제2조에 ‘학술발전을 도모하며 사회공익에 기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제4조에 나열하고 있고, 그 첫 번째로 ‘학문분야의 연구, 교육 및 지도’를 명시하고 있다.

<Box-2> 한국수자원학회 정관중 학회의 목적과 사업

-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KWRA)로 한다.
- 제 2 조(목적) 이 학회는 지구상의 물에 관한 학술발전을 도모하며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1. 이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평의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2. 주사무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유급직원을 둔다.
- 제 4 조(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물”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 교육 및 지도
 2. 회지, 논문집 및 관련 기술 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의 개최 및 국내외 견학시찰
 4.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참석
 5.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물”에 관한 기술연구 및 분석업무의 수행
 6. 포상 및 장학사업
 7. 기타 학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저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이고, 공통적이며, 주된 학회활동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학회지나 학술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공인받아 실적을 축적하고, 타인들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부분이 한국수자원학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에 맞추어 여러 가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런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도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그 비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발간사업과 연구발표회 등이 그냥 루틴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 본다.

2-1 학술발표회

학술발표회의 경우 우리 학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수공학연구회(1963년 활동개시)가 1964년 1월 21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제1회 수공학연구발표회’ 이후 1995년 제37회부터 명칭이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저자가 처음 우리 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여한 것은 1992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소재)에서 개최된 제34회 때였다. 당시 학술발표회장의 뜨거웠던 열기가 기억에 남아있다. 아직 서툰 젊은 회원들이 자기 발표를 기다리며 잔뜩 긴장하고, 비지땀을 흘리며 발표를 하면 뒤에서는 고참 선배 회원들, 주로 저명한 대학교 수님들이 앉아 경청을 하고, 질문을 통해 지적을 하면 때로는 발표자의 지도교수가 답변을 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가던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후 정확한 연도는 기억에 나지 않지만 석사과정 학생들의 발표를 금지하고, 박사과정 이상의 회원만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지금도 학술발표회는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학생 세션이 별도로 있어 새롭게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 활동을 시작한 석사과정 등 초보 회원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그 참여의 열기는 과거와 같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 세션을 담당하는 몇몇 위원들만이 자리를 지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짙게 받았다.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명한 학계의 고참 선배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학문에 대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학술발표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화려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초보회원부터 원로회원까지 함께 학술을 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2-2 논문집 발간

현재 한국수자원학회는 학회지와 국문논문집, 영

문논문집 이외에 ‘수자원정책비전’, 학회발전사, 각종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수공학용어집’ 및 ‘수리학사’ 등 단행본의 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중 국문논문집은 1972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수문협회가 사단법인 한국수문학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당시 발간되고 있던 학회지 ‘물의 과학’에 논문이 처음 수록되면서 시작 되었다. 초창기에는 연 2회씩 발간되던 논문집이 1980년부터 연 4회로 발간되다가, 1995년 2월 18일 제29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수문학회가 한국수자원학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연 6회씩 발간되었으며, 2004년을 기점으로 격월 발간되던 논문집이 매월 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초창기에는 논문이 학회지에 포함되어 출판되었으나, 현재처럼 학회지와 분리한 별 책의 논문집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97년부터이며 비로소 심도 있는 논문집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은 2000년 1월 1일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02년 7월 1일에는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7년 현재 국문논문집의 Impact Factor는 0.77 으로 토목공학분야 26개 학술지 중 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Scopus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장, 간사 그리고 편집위원으로 구성되어 보통 2년간 활동을 하고 있다(2017, 한국수자원학회).

저자의 경우 부끄러운 기록이지만 총 40편의 논문을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중 11편을 한국수자원학회지 및 논문집에 게재하였다. 단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논문들에 더 큰 애착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논문을 게재하는 회원들에게 있어서 한편, 한편의 논문이 모두 소중한 것이겠지만, 평생을 수자원분야에 종사해 온 저자에게 있어서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들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저자가 논문집편집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1997.3~1999.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승 박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위원회의 가장 큰 화두는 우리 논문집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이었으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방안은 투고논문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게재불가 비율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저자는 그 이후 논문심사위원을 맡을 때마다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많은 게재불가를 양산한 바 있다. 물론 터무니없는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당시 희생양이 되었던 동료회원들께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이를 통해 우리 학회 논문집의 질을 상당 수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투고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나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당시보다 더 철저히 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투고자나 심사자나 우리 학회 논문집의 수준이 세계적 유수의 학술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현안 이슈 및 제언

저자가 수행했던 보직 중 수자원홍보분과위원장 (2005. 3.2. ~ 2007. 2. 28)과 운영이사 (2009. 3~2011.2), 회장선거관리위원장 (2016.6~20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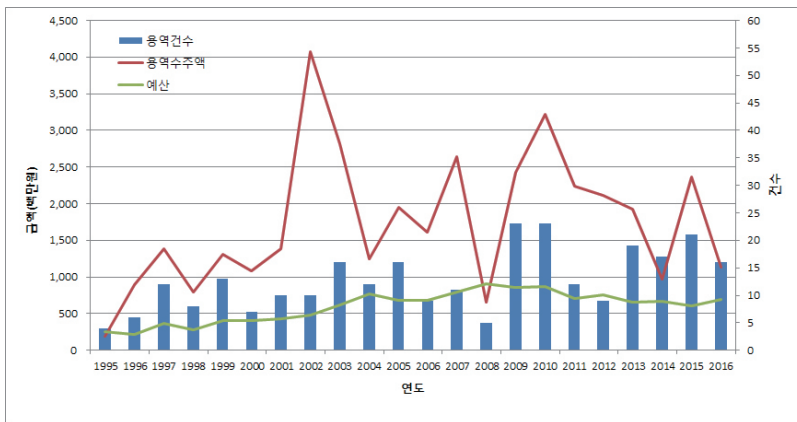
은 학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회의 좀 더 깊은 내면과 이슈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수자원홍보분과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는 우리 학회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나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 이전까지는 가장 초보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게시판 중심의 홈페이지를 주로는 그 업무를 담당했던 회원이 자신의 단체 서버를 이용하여 대리 운영하는 수준이었으나, 저자가 보직을 수행하는 동안 본격적인 디자인과 회원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버관리의 전문업체 위탁,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사용자 계정관리 및 선거관리기능 등이 포함되고, 디자인 면에서 다른 어떤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뒤지지 않는 홈페이지로 발전된 것에 보람을 느끼곤 한다.

다음은 운영이사를 담당하면서 우리 학회 재정과 학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 학회 재정의 주된 수입은 용역수주에 의한 찬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예산의 변화는 용역수주의 변화와 그 추세를 같이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연속된 대형태풍에 따른 홍수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조사 및 재해저감대책과 같은 대형 용역들을 수주하던 시기에 용역수주액이 40억 원을 넘어가기도 하였으나 용역수주액과 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된 때는 저자가 운영이사직을 맡았던 기간인 2009년부터였으며, 이때는 ‘4대강살리기사업’이 진행되던 기간이었다. 그러나 ‘4대강살리기사업’이 마무리되면 서부터 용역수주 규모는 다시 감소추세에 접어들었고 학회의 재정 예산도 따라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1> 한국수자원학회 재정 예산 및 용역수주의 연도별 변화

향후에도 정부의 SOC 건설 예산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학회의 재정도 그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용역수주규모가 확대되었을 때 함께 활성화되고 확대된 사업들(각종 포럼과 심포지엄, 발간사업 등)과 늘어난 지출규모를 다시 축소한다는 것은 개인의 주머니 사정과 마찬가지로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처럼 활성화된 사업과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보다는 지출의 내실화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학회장 선출과 관련한 이슈이다. 저자가 운영이사를 맡을 당시 회장 선거는 선거일에 회원 유권자들이 서울의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모여 직접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K-water 연구원에 근무하던 저자가 회장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전에서 서울로 1일 출장을 통해 다녀와야 했고, K-water 직원의 경우 대략 10만 원 정도의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K-water 소속의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데, 이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K-water에서는 하루에 1,000만원이 넘는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전보다도 먼 지방에서 투표를 위해 상경해야 하는 회원들의 경우 10만 원을 훌쩍 넘는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투표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지방에 있는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회장단(지흥기 회장)에 온라인 투표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부에서는 어떤 여건에서든 선거에 참여할 열성을 가진 회원들이 모여 회장선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이후 선거관리시스템은 계속 보완되고 컴퓨터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으며, 투표율 또한 높아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저자가 생각하는 회장선거제도의 정작 문제는 매번 후보간 과열된 경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저자가 처음 우리 학회에 가입하던 시절에는 원로들이 모여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총회에서 찬반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복수의 후보가 출마를 하고, 유권 회원들이 비밀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유권 회원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민주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 또한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학연과 지연을 배경으로 진영을 만들어 과열 경쟁을 하고, 선거가 끝난 후 패한 측은 한동안 학회 활동에 소극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저자는 여러 번 목격했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에는 후보별로 선거캠프가 설치되고, 후보의 개인적인 지출이긴 하나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등, 학회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회원간 갈등을 낳는 상황도 있었다. 전문가들의 집단인 학회가 민주라는 정치시스템을 통해 회장을 뽑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의문이 들곤 한다. 궁극적으로 회원(진영)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맺음말

저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을 통해 한국수자원학회의 현재 이슈를 조명해 보았다. 그리고 나름의 제안을 포함시켰지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성만을 제시하였다. 보다 합리적인 방안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중지를 모아 우리 학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사)한국수자원학회, 2017, 수자원학회 50년사, 한국수자원학회